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한 생명을 소중히, 한 영혼을 귀중히
- ◎ **전도주일:**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 ◎ **수요예배:** 오는 수요예배(27일)는 1남, 여 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연합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 ◎ **환영회:** 2014년 2/4분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는 9월 6일 (토)오후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 **봉사활동:** 9월 중 학생들 방학 때 공동체별, 선교별로 봉사활동(Outreach,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떠날 성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 기초교리 성경공부반을 모집합니다. 일시: 8월 26일(매주 화요일) 오후 1시-2시 30분 장소: 계수실 기간: 8주
- ◎ **찬양제:** St David's 교회 중국 Community주관으로 다 문화 찬양축제(Multicultural Festival)가 있습니다.
일시: 2014년 8월 30일 (토) 오후 7시 30분 장소: St David's 교회
- ◎ **감사:** 오늘 교제 떡을 준비한 박제용 장로(김영옥 권사) 가정 그리고 어제 밀알 장애우를 섬겨 주신 성도들 감사합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 **창립예배:** 뉴질랜드 노회 소속 하늘그림교회(인진우목사)가 오늘 오후 5시에 창립예배를 드립니다(주소: 12 Seine Rd. Milford).

교우소식

- ◎ **수술:** 추미선 권사(조현구 집사)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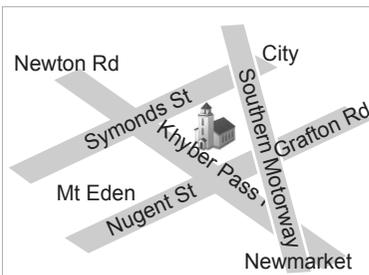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8월 24일 주일 16권 34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자명종과 운동화

화가, 수학자, 발명가로 바빴던 레오나르 다빈치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침잠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를 사는 그에게 끈덕지게 달라붙는 아침잠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생각다 못한 다빈치는 자명종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맞춰놓은 시간이 되면 소리만 울리는 자명종이 아닌 사람의 발을 막 흔들어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야 했던 시계였습니다.

자명종 시계가 골칫거리였던 고약한 아침잠 덕분에 태어났듯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이유로 큰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자칫 사람을 지지게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해”라는 굳은 각오가 오히려 그 길을 향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붙잡기도 합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걸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륙 횡단을 끝마쳤을 때 각지에서 취재 기자들은 그 나이에 무슨 목적으로 대륙을 걸어서 횡단했는지 할머니의 거창한 답변을 잔뜩 기대하며 몰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처음부터 대륙을 횡단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흔의 나이에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대륙을 걷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손자가 선물로 준 운동화 때문이었습니다. 손자가 용돈을 모아 할머니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는데 그 운동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자랑하러 친구집까지 걸어가 볼까? 다리가 아프면 중간에 택시타면 되지 뭐’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 횡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해내고 말거야” 라는 굳은 결심도 좋지만 “안 돼도 괜찮지만 최선을 다해 봐야지” 하는 느긋함과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돌아가면 되지” 하는 할머니가 가졌던 편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각오는 자칫 출발부터 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굳은 의지와 결심은 자칫 자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못해 오셨어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오셨어도 좋습니다. ‘할머니의 운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오지 않을텐데 하는 부담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사정하니까 딱해서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자명종 시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이 필연이 되고, 오늘 하루가 한달에 한번이 될 수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찬 송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시편 99:5,9
찬양대
다함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110. 선교주일
사도신경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최득수 집사
누가복음 19:1-10
나무십자가 찬양대
오늘 구원이 이 집에/이태한목사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간 증
설 교
특 송
광 고
찬 송
주 기 도

1남,여 선교회
강기동 형제
하박국 1:1-4
남영수 집사
하박국의 질문/이태한목사
1남,여 선교회
인도자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특별 성경공부
기도 / 김정훈 형제

◎ 8월 교회악기

월샷기도회: 8월 1일(금)
전도주일: 8월 24일(주일)
선교회주관 수요예배: 8월 27일(수)

◎ 8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석목/김윤자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선화 집사
다음 주일: 박덕철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9월 3일 수요: 이규임 권사
9월 3일 애찬: 임병숙 권사
9월 7일 주일: 김철재 집사
9월 7일 청년부: 이민우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물 구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 2.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성령충만으로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 3. 하나님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도록.
- 4. 영육의 연합함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빠른 회복이, 비자와영주권 문제에 봉착한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도록.

8월 새벽기도회 본문

29일: 디도서 2:9-15 근본적인 변화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선교와 증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증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터키의 정빌립 선교사입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이스탄불의 정빌립 선교사입니다. 뵙지도 못했지만 계속 기도로 증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 국가인 동시에 유럽, 중동과 독립국가연합(CIS) 사이에 있어 항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으나 반대로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교국이라 들어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많은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어서 주로 저희 부부의 사역은 터키의 지리적인 장점인 다양한 문화를 이용하는 선교를 위해 문화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지 사단법인안에 종교역사지리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인 문화원 사무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교회의 역사 및 신앙고백의 배경이 연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강좌와 문화강좌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현지인들과 노방전도와 노상 성탄축하행사도 해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내는 기회를 놓친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육과 한글학교에서 이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갈보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합당하게 쓰임바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입니다.

- 1. 현지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길
- 2. 드리는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충만과 부흥이 임하길
- 3. 가족의 건강한 육체와 영혼에 치유하심과 회복이 일어나길
- 4.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과정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길